

구례군, 수해 복구 예산 3324억 확보

국비 2958억·특별교부세 176억 등...사상 최악 피해 공감

김순호 군수 “주민 일상의 삶 돌아가게 복구 서두를 것”

구례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총 3324억원의 특별교부세와 국비·도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확보한 예산은 국비 2958억원, 특별교부세 176억원, 도비 190억원 등이다.

구례군은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서동용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에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그동안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을 피해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하고, 별도로 군비로 1500여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복구활동을 폈다.

한국에너지재단 협약을 통한 도배·장판 지원(가

구당 330만원)과 구례군·중앙 재난지원금(가구당 300만원), 희망브릿지 수재의연금 지급, 삼성·LG 전자 가전제품 무상 수리 및 30% 할인 지원,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50동 무료 제공, IBK 협약을 통한 5일시장 상가 보수 등도 진행하고 있다.

구례군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문화예술회관·종합사회복지관 등 집수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와 손해사정인을 활용한 호우 피해 진상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를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예산은 군민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등으로 구례군 구례읍 시가지가 모두 잠기는 등 구례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순천 동천 출렁다리 개통

오천 저류지~퐁덕 산책로 연결

순천은 오천 동천저류지와 퐁덕산책로를 잇는 동천 출렁다리가 개통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

동천 출렁다리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보행교로 총 사업비 33억7900만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했다. 동천 팔마대교(남산로)에서 동천교(남송로) 사이 약 1km 구간 중간에 위치한다.

동천 출렁다리는 그동안 바닥판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보강을 완료했다.

출렁다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등산로, 하천, 호수, 바닷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물이어서 지역민들은 이용에 한계가 있으나, 동천 출렁다리는 도심 산책로에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도심 가까운 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산책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출렁다리는 동천 산책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동천저류지에 설치될 전국 최대 야시장 활성화와 2023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소비자 대표 브랜드

여수시 6년 연속 대상

5년째 1300만 관광객 유치

전국 최고 해양관광도시 우뚝

여수시는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해양관광도시 부문 6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에서 여수는 언택트(비접촉) 여행의 중심 도시로 인정받았다.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향후 구매의향이 우수한 브랜드를 조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243곳을 대상으로 63개 후보를 선정해 이 중 3곳이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최고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여수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표 언택트·온택트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와 고흥 사이 4개의 섬을 잇는 해상교량을 건너 아름다운 여수바다 위를 달리는 ‘여수섬섬길’, 행정안전부 ‘가고싶은 33섬’에 선정된 거문도 뱃노래길·낭도 들레길·개도 사랄길·금오도 비렁길 등 언택트 여행지에서 휴식과 치유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수는 언제나 매력 넘치는 곳으로 손꼽힌다.

12만 팔로워와 소통하는 여수관광 SNS ‘힐링여수’에서 여수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랜선여행’(인터넷 여행) 할 수 있도록 언택트 홍보에 힘썼다. 여수시가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를 통해 영상과 이야기로 여수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항 컨부두 운영사 통합...경쟁력 높인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

SMGT·GWCT 통합 추진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통합이 추진된다.

해운물류 침체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통합을 추진한다.

공사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통합 운영사에 대해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방식은 SM상선이 보유한 SMGT의 자본(약 98%)을 GWCT가 모두 인수하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사의 중재 등을 통해 SMGT 종사인력은 전원 GWCT가 고용하기로 해 고용 안정을 확보했다.

SMGT와 GWCT 양사는 10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2-1단계(SMGT) 선적을 반납한 후 인력·장비를 3-1단계(GWCT)로 이전해 광양항 최초의 3조2교대, 24시간 운영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운영사 통합 추진은 운영사와 공사 간 컨부두터미널의 재산상 악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위기 공감에서 어렵게 결정됐다.

공사는 운영사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가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로 통합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바라본 컨테이너 부두.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록 임대료 유예 및 분납, 하역장비 이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 운영사의 초기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임대료를 포함해 총 279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3년간 유예하고, 이후 3년간 분할해 상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통합 운영사인 GWCT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크레인(C/C)과 트랜스퍼 크레인(T/C) 등 하역장비는 공사가 전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컨테이너부두의 고질적인 야드 혼잡이나 상하차 지원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 검수·세척·

수리 시설을 추가 확충한다.

GWCT 모기업의 성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대주주인 장금상선에는 유예임대료 전액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적정 물동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을 담보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운영사 통합을 통해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 부두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사 간 과다경쟁을 방지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이후 최초로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보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청년창업 3개팀에

팀당 최대 1200만원씩 지원

광양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으로 청년창업(예비·초기) 3개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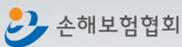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가를 모집해 창업의 전 과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 이하 청년 3-5인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팀으로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의무교육 등의 이수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팀은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하고, 팀당 최대 1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앞서 상반기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팀이 선정돼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1개 기업은 2020년 하반기 전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